

## 136. 이것들이 적들이 너희들의 선을 빼앗아가는 방법이야...

### 자만심, 화 그리고 사과.

2015.09.19 – 주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

(클레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밤 주님은 용서 그리고 화와 용서하지 않음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통때와 같이.. 저는 기니피그(실험용 쥐)가 되었어요..

오늘밤은 저와 예수님이 춤을 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님은 달 빛이 비추는 베란다로 저를 데리고 나가셨고 달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호수와 바로 앞에 노란 장미가 있는 아주 특별한 정원의 화려한 벤치에 저희는 앉아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너의 마음의 동산에 있어.

(클레어) 저희가요?

(예수님) 그래, 우리가.

(클레어) 음, 저는 이것이 주님인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저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 메시지의 뒷부분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약속책을 펼쳐보았고 ‘겸손(Humility)’과 ‘장수(Long Life)’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 저는 ‘성령님(Holy spirit)’ 페이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주님이 아닐 것 같아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잘못된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클레어) 주님, 저의 자만심 때문에 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실 건가요?

(예수님) 아니, 내사랑아, 나는 단지 너에게 겸손함을 상기시켜주는 거야. 너는 갈 길이 멀어.

(클레어) 알아요 주님. 죄송해요.

(예수님)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우리는 함께 갈 거야.

(클레어) 이 순간에 저는 다시 성경 약속의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성령님(Holy Sprit)’을 펼쳤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레마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에스겔은 항상 함께 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메시지를 받는 동안 에스겔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 가는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 줘요. 그런 후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해. 그들에게는 인내심을 잃지 않기 위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

(클레어) 네, 저도 알아요 주님. 제가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저는 그 추악한 고개를 드는 자만심을 알아요.

(예수님) 나는 그것들이 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교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

(클레어)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연민, 이해, 용서. 겸손의 모든 사랑스러운 열매.

(클레어) 네, 이제 제가 왜 겸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너가 정말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 나는 너가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했어.

(클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음,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돌려서 말씀하시는 칭찬 같지만 그것 마저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음,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나는 너가 너의 균형을 잃기를 원하지 않아. 만약 너가 쉽게 분노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순간에 방해받을 수 있어.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났던 일 아니야?

(클레어) 네 주님, 맞아요.

(예수님) 에스겔이 균형을 잃었을 때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지만, 스스로 균형을 잃은 것을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하지만 에스겔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너도 영향을 받아. 이것은 다른 일들에 대한 집중력을 빼앗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별 소득도 없이 바쁘게 만들기만 해.

이것은 불시의 타격(100. 불시의 타격을 맞았어? 나에게 먼저 와라.)보다는 더 부드럽고 이것은 넘어지는 것과 비슷해. 너는 평화롭고 자신감 있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보지

못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너는 화로 떨어지게 되..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왜 이야기하지 않니?

(클레어) 음.. 제가 꼭 이야기해야 해요?

(예수님) 아니, 나는 단지 추천하는 거야.

(클레어) 알겠어요, 말할게요. 제가 어떤 것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요.

(예수님) 음.. 너는 다크초콜릿바로 나를 부인했잖아.

(클레어) 오, 주님 그것은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그래?

(클레어) 주님은 미소를 참고 농담조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구와 화가 났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비유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이 바뀌고..” 그런 후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어요.. “저희 동영상 중 하나에 댓글을 올린 나이드신 한 남성분이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바로 저를 멈추셨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클레어) 그래서 사실들을 바꿨다고 고백했는데도 비유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되.

(클레어) 알겠어요. 모든 것을 말할게요. 저는 주님과 저희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게시한 시청자 중 한 명에게 화가 났고 참을 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차가웠었어요.. 사실, 이 사람을 조금 투명스럽게 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예요.

(예수님) 어서 이야기를 끝내라.

(클레어) 저는 생각하였어요.. ‘오 이건 주님이 아니실 거야, 나는 확실하게 속은 거야.’ 저는 그래서 성경 약속을 책을 펼쳤고 제가 무엇을 열었는지 아세요? ‘성령님(Holy Spirit)’이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확신을 가졌지만 재미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이것은 재미있지 않지만 필요해. 너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할 빛이 있어.

(클레어) 네, 주님 저도 알아요.

(예수님) 음, 그럼 이야기해.

(클레어) 저는 왜 벽돌을 삼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울고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는 상처를 받았고 잘 다루지 못했어. 누군가 나를 잘못 표현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너도 알잖아. 나는 여전히 너가 온유하고 용서하기를 원해.

(클레어) 어쨌거나 냉정한 대답을 남긴 후에 이 젊은 아가씨에게 조금 짜증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끊기 시작했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좋지 않아,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겠어.' 저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였고 에스겔도 끊기 시작했고 끊음은 점점 심해지고 심해졌어요. 저희 둘 다 저희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무엇인가가 저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 암흑 물질의 영향 같은 것?

(클레어) 그게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비슷해. 너는 용서하지 않는 악마를 다루고 있었어.

(클레어) 음, 그 사건 이후로 어제 제가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기도를 했을 때 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메시지의 6문단을 작성하였고 생각하였어요. '이것은 주님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에스겔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에스겔이 말하기를 "그건 주님이 아니야"라고 해서 저는 그 메시지를 버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왜 주님은 그것이 제 머리속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친숙한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깨닫기 전에 6문단을 쓰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 그것은 똑 같은 용서하지 않은 악마이고 너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말해주었어.

(클레어) 와. 그것은 매우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악마가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가 왜 속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자만심이요. 그것은 항상 자만심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레마는 모두 겸손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가혹한 태도로 다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에스겔이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용서. 당신은 그녀를 용서해야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속으로 화나 있었지만 용서하겠다는 의지의 행동을 하였어요. 용서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의지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주님은 저에게 여러 번 확인시켜 주신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클레어) 죄송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화를 참지 못한 것어요. 저는 그것을 훨씬 더 다르게 다루었어야 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잘했어. 나머지 남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줘.

(클레어) 음, 제가 이 댓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전화가 올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전화기가 계속 울리도록 두었어요. 저는 그 댓글에 너무 화가 났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고 두 번 연속으로 저에게 전화를 절대로 한 적이 없는 캐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캐롤은 방금 일어난 치명적인 오토바이사고로 그녀의 남편의 동생과 그의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예수님) 내 자녀들아, 너희들도 보다시피 악마들은 영리해. 너희들을 정말로 중요한 것에서 방해하기 위해 중요한 시간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할 거야.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상황이 올 동안에 악마들은 너희들을 화, 분열, 자만심으로 고조시킬 거야.

악마들이 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성공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거의 매 번이야. 두 명의 도둑이 상점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본 적 있어? 한 사람은 카운터에서 소동을 일으켜 모든 시선을 그 사람에게 가게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은 값 비싼 술을 들고 문밖으로 몰래 빠져나가. 이것은 항상 일어나.

이 새로운 악의 맹공격에 너희들 모두가 악마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훨씬 더 많이 알아차려야 해.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해.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화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독이야.

화를 내지 말아라. 나와 함께 조용한 공간으로 돌아와서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럼 너희들은 전진할 수 있을 거야. 나의 자녀들아, 이것이 적들이 너희들에게서 선을 훔치는 방법이야. 사전경계가 사전무장이야.

나는 클레어가 회개할 때까지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 나는 회개를 하지 않은 자만심이 강한 그릇을 사용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만함의 죄에서 비롯된 거야. 마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

나는 나의 소중한 신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클레어는 그녀를 통한 나의 가르침들에서 그녀에 대한 비밀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이미 동의하였어. 하지만 이것을 알아라. 이 사건에서 다시 말했듯이 너희들의 행동들이 나와 악마에게 다 보여.

그리고 쓰라림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신부를 어떻게 휴거 할 수 있겠어? 여전히 너희들의 거룩함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주었고 너희들은 혼자야. 너희들이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안고 갈 거야.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너희들의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화를 더 인지할 수 있고 더 기꺼이 내려 놓고, 사랑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이야. 지금의 시기가 너희들의 앞에 펼쳐있고 너희들의 모든 발걸음은 악마들에 의해 표시되고 계산된다는 것에 주의해라. 악마들은 너희들의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할 의도가 없어. 너희들은 파괴되어야 할 표적이야.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하고, 함정에 빠지거나 너희들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너희들 자신의 완벽한 인식의 느낌과 조심성을 가져야해.

알다시피, 나는 너희들이 영혼들을 나의 왕국으로 데려올 준비가 되어있기를 바라고, 악마들에게 너희들은 위협적이고 내 뜻 안의 너희들의 길을 간다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 그래서 악마들은 너희들의 육체로 너희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나의 신부들아, 이때가 중요한 시간이야. 너희들은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있으며 그것은 어둠의 왕국을 태워버리고 있어. 따라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악마들의 표적이 되. 악마들은 영리한 작은 말썽꾸러기처럼 끊임없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분석할 거야. 악마들은 항상 공모하고 너희들을 떨어뜨려 너희들을 사용하려는 나의 뜻을 막으려는 방법을 찾아.

그래서 이 가르침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클레어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고 조심스럽게 걸어라. 매일 매일은 나를 영광스럽게 할 새로운 기회.. 혹은 나를 불명예스럽게 할 기회야.

너희들이 나에게 절대로 책망받지 않게 하고, 영원히 내가 준 너희들의 일과 그 순간 순간의 적절한 시간에 민감해지는 축복을 지금 너희들에게 줄게. 적들이 너희들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라. 매일 겸손, 인내, 관용을 연습해라. 그러면 그런 시험들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오른편에서 너희들의 팔을 잡고 꾸준하게 견도록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그럼 나는 너를 들어올려서 남은 길을 안고 갈 거야.